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S/S 프레타포르테 콜렉션을 중심으로-

이 영 재 · 박 민 여*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Deconstruction of the Street Fashion in 1990s

-Focus on S/S prêt-à-porter Collections-

Lee, Young-jae · Park, Meeg-nee*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ng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 Hee University

(2000. 3. 30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econstructive trends of the street fashion in the 1990s' spring/summer(S/S) Collections.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both the qualitative analysis and the quantitative analysis. In the qualitative analysis, the important street fashion was grouped and deconstruction was sampling of category.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it took frequency, percentage and χ^2 -test.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1. 'Neo-Hippie/Grunge' has been most popular street fashion through the 1990s. The next is 'Sportive Casual'.
2. According to 'deconstructive inner meaning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S street fashion in the 1990s. In 'Neo-Mods/Jazz' style, 'Sportive Casual style' and 'Technos/Cyber-punk' style, 'Intertextuality' is high. In 'Neo-Hippie/Grunge' style, 'Exhibition of Otherness' is high.
3. According to the 'deconstructive outer description', there a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S street fashion in the 1990s. But, In 'Neo-Mods/Jazz' style, 'Not Included' is high, which means the 'Neo-Mods/Jazz' isn't related to the 'deconstructive outer description'. In 'Neo-Hippie/Grunge' style, 'Poverty · outworn' is high. In 'Sportive Casual', 'Exposure' is high. In the 'Technos/Cyber-punk', 'Destruction · Division' is high.

Key words: deconstructive inner meanings, deconstructive outer description, Street fashion;

해체주의 내적 의미, 해체주의 외적표현, 스트리트 패션

I. 서 론

1. 연구 목적

스트리트 스타일은 거리의 청소년들이나 소외된 계층들이 과시적 욕구와 반항의 표현으로 1940년대 부터 착용하기 시작하여 현대에 들어와서는 하이패션에 수용되어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으로 대중화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스트리트에 나타난 대중들의 패션을 역으로 도입하여 콜렉션 테마로 삼고 있으며, 이와 같이 하위문화가 문화의 중심부로 부상하는 현상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 하나로 패션의 변화가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연장이자 반발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1950년대부터 부상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음악, 문학, 미술, 건축, 패션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전성기를 맞고 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한 철학적 사실을 내포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주된 특징은 총체적 중심주의를 '해체' 하고 다원주의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Morgado¹⁾는 현대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과 이론을 소개하면서 '해체주의'를 포스트 모더니즘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해체주의는 현전(presence)의 형이상학적 패러다임 속에서 사물의 본질을 단일화시키고 규격화하는 절대성을 거부한다. 사물을 인지함에 있어 공간적 간격두기와 시간적 차이두기를 통해서 현전에 의해 가려져 있던 타자성(otherness)을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사물을 무수한 관점으로 동시에 수용한다. 나아가 사물을 동질의 것으로만 보지 않고 해석 불가능한 무수한 이질성을 표현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리트 스타일의 유행 현상과 스트리트 패션별 특징을 연구하거나²⁻⁶⁾,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가 패션에 도입된 것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정성적 연구가 대부분이다⁷⁻¹¹⁾. 현대 철학의 중심사상인 해체주의와 현대 패션의 주류인 스트리트 스타일이 우리의 실생활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21세기를 맞이하여, 패션 현상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미래 패션의 발전상 제시는 우리 패션계의 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즉, 패션에 제반된 현상을 인류의 삶에 있어서 사상적 배경이 되는 철학적 관점으로 이해하여 심층 연구함으로써 빠른 변화 속의 패션현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을 실증 자료를 토대로 분석·고찰함으로써 패션 현상의 구체적인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그 동안 복식미학 분야나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연구 방법으로 채택되어 왔던 정성적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량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보다 더 체계적인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 문제를 논의하였다.

첫째, 1990년대 S/S 스트리트 패션의 유행을 파악한다.

둘째, 1990년대 S/S 스트리트 패션별 해체주의 내적 의미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1990년대 S/S 스트리트 패션별 해체주의 외적표현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문헌 중심의 연구를 토대로 해체주의 철학과 스트리트 스타일을 고찰하여 해체주의 철학의 특징을 추출한 유목과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을 그루핑한 유목으로 내용 분석을 위한 범주를 정하였다. 정량적 분석은 내용 분석을 수행하여, 스트리트 스타일별 해체주의의 표현 특성을 통계 처리를 거쳐 수량적으로 고찰하였다.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의 사진 자료 수집은 오프 쿠티르(haut couture) 패션쇼보다 스트리트 패션이 비교적 많이 제시되어 있는 프레타 포르테(prêt-à-porter) 패션쇼가 실려있는 '컬렉션 II (Collections II)'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프레타 포르테 패션쇼는 1년에 Spring/Summer(S/S)와 Autumn/Winter(A/W) 두 번에 걸쳐 세계의 여러 패션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이를 단행본으로 발간하고 있는 잡지도 여러 종류가 있다. 여기서, '컬렉션Ⅱ'는 파리와 런던에서 개최된 프레타 포르테 패션쇼를 모은 것으로 파리와 런던이 타 지역보다 비교적 스트리트 패션과 전위적인 패션이 많이 표현되어 선정하게 되었고, 계절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S/S만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패션에서 해체주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10년간으로 하였다.

분석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사진은 컬렉션 각 권에서 60매를 선정하였다. 선정 방법은 전체 쪽수를 잡지 한 권당 필요한 사진 숫자인 60으로 나누어 5~6쪽마다 그 쪽에 나타난 스트리트 패션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1990~1999년까지 모두 600매의 사진을 추출하였다. 스트리트 패션의 사진을 선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와 4인의 의류관련학과 강사 및 교수가 분석에 참여하였으며, 그 신뢰도는 0.78로 나타났다. 또한,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범주는 선행 연구의 참조와 본 연구자를 포함한 3인의 대학교수 집단의 토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II. 연구 결과

1. 정성적 연구 결과

(1)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

1990년대 패션의 흐름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의 경제불황에 따라 basic style을 다양하게 코디해서 입을 수 있는 캐주얼웨어가 활성화되어 스트리트 패션으로 정착되었다. 복합소재, 신가공 소재 등의 하이테크 소재의 진전과 그린이, 에스닉, 스쿨 걸룩이 공존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는 엘레강스 페미닌 스타일의 body conscious 실루엣이 강세를 보였고, 후반기에는 소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의복의 경량화와 소프트화가 가속되고 상호작용(super interaction)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¹²⁾. 또한, 트렌드와 반(counter) 트렌드가 공존하였으며¹³⁾, 자연과 본성으로의 회귀, 컴퓨터 통신의 생활화, 스포츠/레저/타운캐주얼의 세분화, 규범으로부터의 자유분방함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위의 자료로부터 자연 취향의 히피 스타일, 사이버 스타일,

스포츠 캐주얼 스타일, 펑크, 유니섹스 스타일을 추출할 수 있었다.

Polhemus¹⁴⁾는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스트리트 스타일의 흐름을 차트화하여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그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의 주류를 이루는 스트리트 스타일을 Acid jazz, Grunge & Riot grrrls, Technos & Cyberpunks, Raggamuffin & Bhangramuffin로 분류하였다. Acid jazz는 전시대의 Zooties, Hipsters, Beates, Teddy boys, Modernist, Mods, B-boys & Flygirls에 영향을 받았고, Grunge & Riot grrrls는 Biker, Rockers, Hippies, Skaters, Casuals, New romantics에 영향을 받았으며, Technos와 Cyberpunks는 Biker, Rockers, Skinheads, Punks, Ravers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Raggamuffin, Bhangramuffin은 Biker, Rude boys, Two tone, Rastafarians, B-boys Flygirls, New romantics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도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스트리트 스타일과 1990년대 이후의 대표적인 스트리트 스타일로 히피의 성격이 강한 The gathering of the tribes와 신 캐주얼스타일이라 할 수 있는 The supermarket of style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Acid jazz와 B-boys & Flygirls를 네오모즈/재즈(Neo-Mods/Jazz) 스타일로, Grunge & Riot grrrls와 New romantics, The gathering of the tribes를 네오히피/그린지(Neohippie/Grunge) 스타일로, Technos와 Cyberpunks를 테크노/사이버 펑크(Techno/Cyberpunk) 스타일로, Raggamuffin과 Bhangramuffin 그리고 The supermarket of style를 스포티브 캐주얼(Sportive Casuals)로 통합하여 그룹핑할 수 있었다.

특히, 삼성 패션 트렌드의 분석으로부터 얻은 결과^{15, 16)}와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컬렉션지 논평¹⁷⁾과 삼성패션연구소의 '패션 포럼'¹⁸⁾, 'Message From the Street'¹⁹⁾에 실려 있는 분석 내용도 위의 스트리트 스타일의 분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위의 네그룹으로 그룹핑할 수 있었다.

(2)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해체주의의 철학적 해석에 보다 더 충실한 정성

적 연구를 통해서 '차연의 유희'나 '타자성의 부각' 그리고, '탈장르'를 중요한 범주로 선정하였다. 특히, '타자성의 부각'과 '차연의 유희'는 해체 철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개념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연은 공간적인 차이 또는 대조를 뜻하는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지연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를 뜻한다²⁰⁾. 즉, 공간화에 따른 구별, 차별, 간격으로 인하여 상이하게 되는 것, 시간화에 따른 우회, 연기, 유보가 바로 차연이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의미의 고정화가 시간적으로 연기되는 차연의 유희를 수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연필을 전통 철학에서는 필기도구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를 결정론적 사고로 억압해 왔다. 그러나, 해체 철학에서는 차연의 유희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론적인 사고체계를 거부한다. 연필이 필기도구도 되지만 흉기도 될 수 있고, 종이를 뚫는 송곳도 되었다가 가려운 등을 긁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듯, 해체는 현전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presence)의 숨겨진 작용들을 노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현전은 '존재하는(present)' 혹은 '존재하고 있는(being present)'을 의미하는 그리이스 문자이다²¹⁾. 현전은 사물을 인지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전통 철학에서는 현전에 나타난 것들을 그 사물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전부이거나 대표되는 것으로 보아 왔다. 그러므로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 많은 부분들은 현전 뒤에 가려져 사물의 본질이나 실체를 진실되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즉, 서구 철학의 이성중심주의(logocentrism)는 현전에 의해 가려져 있던 숨겨진 작용, 다시 말해 타자들을 억눌러 왔다. 복잡 다단한 사물이나 기호는 다양하게 끊임없이 해석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본체를 구성하고 있는 타자들이 숨겨지고 접혀져, 길으로 드러나 있는 단언적인 몇가지 목소리로 대변되어 왔다.

그러나 Nietzsche, Sartre, Heidegger, Voltaire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환원적 사고 방식이 격렬히 도전받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Foucault, Derrida, Deleuze 등에 의하여 복잡 다단한 사물의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즉, 가라앉아 있는 의미인 잊혀지고 잠들어 있는 침전물을 끄집어내는 개념이²²⁾ 바로 타자성의 부각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을 위한 유목으로 사용한 해체주의 내적 의미는 해체 철학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범주는 '상호텍스트성', '탈현상', '차연의 유희', '타자성의 부각'으로 정하였다. 해체주의 외적 표현은 해체 철학이 조형분야에 도입되어 디자인으로 표현된 유형으로 '노출', '파괴·분해', '황폐·빈곤', '탈장르'를 범주로 정하였다. 위와 같이 범주를 정하게 된 것은 정성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를 포함한 3인의 대학교수 집단의 토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표 1>은 해체주의 내적 의미로 선정된 범주와 패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식의 특징을, <표 2>는 해체주의 외적 표현으로 선정된 범주와 패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식의 특징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2. 정량적 분석 결과

1) 1990년대 S/S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

<표 3>은 1990년대 시기별 S/S 스트리트 패션의 변화이다. 1990년대부터 1993년까지를 살펴보면, 스포티브 캐주얼 스타일과 네오히피/그런지 스타일이

<표 1>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내적 의미

해체의 내적의미	복식의 특징
상호텍스트성	성(性)의 혼용-양성, 중성, 제3의 성과 시간성, 공간성, 목적성의 해체
탈현상	의복의 중심/수직/수평성의 탈피, 서양 의복 디자인 원리의 해체, 위치 전환 기법을 통한 고정관념 해체 입을 수 없는 옷, 서양 의복 구성 원리의 해체 형태, 색상, 비율, 사이즈, 무질서 등 미적 원리의 해체
차연의 유희	착장 방법의 결정 유보, 미완성의 완성, 보완 작업이 필요한 결정 유보
타자성의 부각	가려져 있던 것들의 전면 대두로 동양풍의 의복, 청소년, 흑인 등 소외된 집단의 부각, 겉옷 위로 속옷의 부상 과거 역사 속의 복식 리바이벌

〈표 2〉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외적 표현

해체의 외적표현	복식의 특징
노출	육체의 전부 혹은 일부분(특히, 과거 금기시 되었던 부분) 노출, 속옷의 겹옷화, 란제리 룩, 솔기의 시집, 안감, 심지, 닥트 등 의복 구조의 노출
파괴·분해	슬래쉬, 구멍 등을 통한 의복의 소재나 형태의 파괴, 완성과 파괴 사이 정지, 의복 구조의 파편적 분해를 통한 파괴
빈곤·황폐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 일본 디자이너들의 푸어룩처럼 절제된 형태, 재활용 패션의 중고 스타일, 그린지 룩, 의복 소재의 패치워크, 탈색, 울 풀기, 프린지
탈장르	상반된 소재의 사용, 크로스 오버 룩, 이질적인 것의 나열, 병치, 접촉, 산중, 하이브리드, 퓨전

각각 37.9%와 37.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네오히피/그런지 스타일이 39.4%로 가장 높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스포티브 캐주얼 스타일이 30.6%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중반기에 이어 네오히피/그런지 스타일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스포티브 캐주얼 스타일로 33.9%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의 연도별 시기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초반기인 1990~1993년까지는 4권의 컬렉션 II를 사용하여 각 권의 60매씩 240매가 되었고, 1994~1996년과 1997~1999년은 각각 3권의 컬렉션 II를 사용하여 각각 180매가 되었다.

<표 3>에서 네 그룹의 스트리트 패션 중 네오히피/그런지가 가장 유행하였고, 중·후반 이후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80년대 이

후 대두된 환경보호 운동의 영향으로 다른 스트리트 패션보다 이콜로지 룩에 가까운 네오히피/그런지가 가장 많았음을 말해준다([사진 1]).

그 다음으로는 초반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스포티브 캐주얼 웨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류의 문화적, 경제적 진보가 생활의 풍요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가와 레저 웨어의 활성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의 대중 확산과 보급에 따른 스포츠웨어의 패션화가 스포티브 캐주얼 스타일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테크노/사이버펑크 스타일은 1990년대 초기에 높게 나타났다가 중·후반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 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사이버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관심이 테크노/사이버펑크 스타일의 전위성으로 표출되



[사진 1] Neohippies/Grunge style, Yuki Torii, 94 S/S Collection, p. 264

〈표 3〉 1990년대 S/S 스트리트 패션의 변화

[단위: 빈도 (%)]

연대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런지	스포츠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펑크	총계
1990~1993	19(7.9)	90(37.5)	91(37.9)	40(16.7)	240(40.0)
1994~1996	30(16.7)	71(39.4)	55(30.6)	24(13.3)	180(30.0)
1997~1999	32(17.8)	64(35.6)	61(33.9)	23(12.8)	180(30.3)
계	81(3.5)	225(37.5)	206(34.5)	87(14.5)	600(100.0)



[사진 2] Techno/Cyberpunk style, Thierry Mugler, 92 S/S Collection, p. 59

어 패션에 나타났으나, 실생활에 적용되어지는 디자인으로는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콜렉션에서 보편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사진 2]).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은 여성의 사회 활동과 교육 확대로 여성복의 남성복화, 그리고, 중성화가 꾸준히 증가하여 나타난 것으로, 1990년대 초반에는 낮게 나타났다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1]은 1990년대 S/S 스트리트 패션의 유행을 보여주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스포티브 캐주얼이,

중반에는 네오히피/그런지가 가장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위 두 스타일은 1997년과 1998년에 감소하여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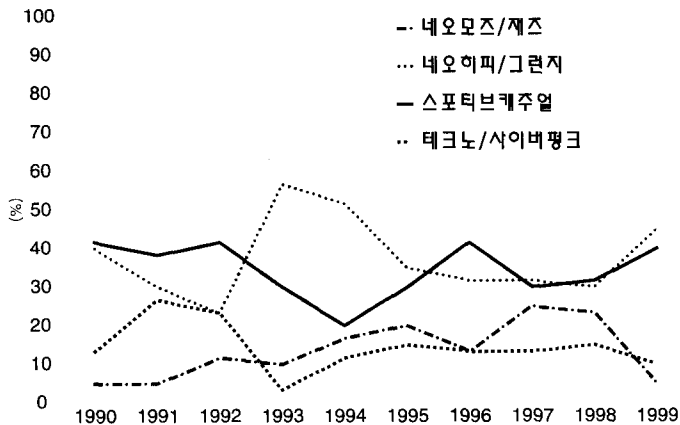
(1) 1990년대 S/S 스트리트 패션별 해체주의 내적 의미의 차이

1990년대 S/S 각 스트리트 패션별 해체주의 내적 의미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90.78$).

각 스트리트 패션별로 살펴보면,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은 상호텍스트성이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상호텍스트성은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의 남성성 혹은 양성성의 표현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이다. [사진 3]은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의 탈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4]에서 착장 방법에 있어서 의미의 불확정성이 나타난 차연의 유희를 발견할 수 있다.

네오히피/그런지에서는 상호텍스트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 범주의 내적 의미가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 타자성의 부각이 76.6%이고, 탈현상이 61.2%로 높게 나타났다. 타자성의 부각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비치는 소재의 사용을 통한 신체의 노출, 속옷의 가시화([사진 5])와 속옷의 걸옷화의 영향으로 S/S의 계절성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스포티브 캐주얼에서도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처럼 상호텍스트성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



[그림 1] S/S스트리트 패션의 유행



[사진 3] Neomods/Jazz style, Jean-Paul Gaultier, 94 S/S Collection, p. 263



[사진 4] Neomods/Jazz style, Comme Des Garcon, 95 S/S Collection, p. 263

기서의 상호텍스트성은 성(性)과 T.P.O의 해체에 따른 것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 계층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서는 성이나 T.P.O에 따른 의복 착용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해변이나 야외에서 즐기는 액티브 스포츠웨어나 캐주얼웨어가 일상복으로 정착되어 스트리트 패션을 형성하며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도



[사진 5] Neohippies/Grunge style, Alexander McQueen, 97 S/S Collection, p. 326

위와 같은 현상을 설명해준다([사진 6]).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도 성의 혼용, 또는 중성을 보여준 상호텍스트성이 17.3%로 가장 높았다.

상호텍스트성에서 네오모즈/재즈가 9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탈현상과 타자성의 부각, 차연의 유희에서는 네오히피/그런지가 각각 26.7%, 43.6%, 6.7%로 타자성의 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90년대 S/S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내적 의미에서 상호텍스트성이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스트리트 패션의 성(性)의 혼합과 T.P.O의 혼재 현상이 뚜렷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은 타자성의 부각으로 21.4%를 차지했다.

분석한 사진 자료 600매 중 2매는 해체주의의 내적 의미에 해당되지 않았다. 스포티브 캐주얼과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 해체주의의 내적 의미와 해당 없음이 각각 1매씩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2) 1990년대 S/S 스트리트 패션별 해체주의의 외적 표현의 차이

1990년대 S/S 각 스트리트 패션별 해체주의의 외적 표현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51.61$).

네오모즈/재즈에서는 해당없음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해체주의의 외적 표현과 관련이 없음

〈표 4〉 S/S 스트리트 패션별 해체주의 내적 의미의 차이

[단위: 빈도 (%)]

스타일 내적 의미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런지	스포츠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펑크	계
상호텍스트성	73 (21.4) (90.1)	52 (15.3) (23.1)	157 (46.0) (76.2)	59 (17.3) (68.6)	341 (100.0) (57.0)
탈현상	4 (4.1) (4.9)	60 (61.2) (26.7)	22 (22.5) (10.7)	12 (12.2) (14.0)	98 (100.0) (16.4)
차연의 유희	3 (9.7) (3.7)	15 (48.4) (6.7)	11 (35.5) (5.3)	2 (6.5) (2.3)	31 (100.0) (5.2)
타자성의 부각	1 (0.8) (1.2)	98 (76.6) (43.6)	16 (12.5) (7.8)	13 (10.2) (15.1)	128 (100.0) (21.4)
계	81 (13.5) (100.0)	225 (37.6) (100.0)	207 (34.6) (100.0)	87 (14.5) (100.0)	598 (100.0) (100.0)

$$\chi^2 = 190.78^{***}$$

***p<.001



[사진 6] Sportive Casual style, Chanel, 98 S/S Collection, p. 155

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탈장르가 24.0%로 나타났다. [사진 6]은 네오모즈/재즈 스타일로 댄디한 남성복과 에스닉풍의 블라우스, 레어드 스커트의 이질적인 병치가 눈에 띈다. 네오모즈/재즈 스타일



[사진 7] Neomods/Jazz style, Jean-Paul Gaultier, 97 S/S Collection, p. 65

은 테일러드한 남성복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해체주의 표현 형식인 노출, 파괴·분해 그리고 빈곤·황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네오히피/그런지에서는 빈곤·황폐가 73.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네오히피/그런지 스타일이 패치

〈표 5〉 S/S 스트리트 패션별 해체주의 외적 표현의 차이

[단위: 빈도 (%)]

해체주의	스타일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린지	스포티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펑크	계
	외적 표현					
해당 있음	노출	16 (7.8) (19.8)	66 (32.2) (29.3)	88 (42.9) (42.5)	35 (17.0) (40.2)	205 (100.0) (34.2)
	파괴·분해	9 (13.6) (11.1)	16 (24.2) (7.1)	22 (33.3) (10.6)	19 (28.8) (21.8)	66 (100.0) (11.0)
	빈곤·황폐	6 (4.1) (7.4)	106 (73.1) (47.1)	29 (20.0) (14.0)	4 (2.8) (4.6)	145 (100.0) (24.2)
	탈장르	30 (24.0) (37.0)	28 (22.4) (12.4)	44 (35.2) (21.3)	23 (18.4) (26.4)	125 (100.0) (20.8)
	해당 없음	20 (33.9) (24.7)	9 (15.3) (4.0)	24 (40.7) (11.6)	6 (10.2) (6.9)	59 (100.0) (9.8)
	계	81 (13.5) (100.0)	225 (37.5) (100.0)	207 (34.5) (100.0)	87 (14.5) (100.0)	600 (100.0) (100.0)

$\chi^2 = 151.61^{***}$

***p<.001

워크나 짜집기, 탈색 및 퇴색, 프린팅을 통해 의복의 소재와 형태를 해체하였고, 복식의 빈곤미를 표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사진 8]은 패치워크와 그물조직, 너털너털하게 황폐화시킨 장갑 등이 질적인 것들의 병치를 보여주는 네오히피 그린지 스타일이다.

스포티브 캐주얼에서는 노출이 42.9%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노출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S/S 라는 계절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 40.7%인 해당없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스포티브 캐주얼 스타일은 해체주의의 외적 표현이 내적의미보다 적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사진 9]는 스포티브 캐주얼 스타일로 과감한 노출이 보여지고 있다.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는 파괴·분해가 28.8%, 노출이 17.0%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해체주의의 외적 표현 중 가장 적극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인 파괴·분해가 그

과격성과 공격성으로 인해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만 보여지고 있고, 다른 스트리트 패션에서는 많이 도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0]은 테크노/사이버펑크 스타일로 해체주의의 외적 표현 중 빈곤·황폐가 나타나고 있다.

해체주의 내적 의미에 비해 외적 표현에서 해당없음의 범주가 수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해체주의 외적 표현이 내적 의미보다 적극적인 가시적 표현 방법이라 디자이너들이 콜렉션을 통해 발표하기에 주저함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노출에서는 스포티브 캐주얼이 42.5%, 파괴·분해에서 테크노/사이버펑크가 21.8%, 빈곤·황폐는 네오히피/그린지가 47.1%. 탈장르에서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이 37.0%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해당없음에서는 네오모즈/재즈가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90년대 S/S 스트리트 패션의 해체주의의 외적



[사진 8] Neohippies/Grunge style, Christian Lacroix, 97
S/S Collections, p. 169



[사진 9] Sportive Casual style, Michiko Koshino, 91
S/S Collections, p. 306

표현을 보면, 노출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봄/여름이라는 계절적인 영향과 해체주의의 열린



[사진 10] Techno/Cyberpunk style, Issey Miyake, 94
S/S Collection, p. 99

사고 지향으로 인한 과감한 개방과 여성 지위 향상에 힘입어 노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III. 요약 및 결론

21C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현대 사회의 포스트 모던화에 따른 해체주의적 경향은 패션에서 복잡하고 다양화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현대 패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스트리트 패션은 거리를 중심으로 한 주변문화가 주문화로 침투되어 상향 전파된 실례이다. 그러므로, 스트리트 패션의 특성이 현대 사회의 포스트 모던화를 대변해주고 있음을 주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통해 발표되었던 스트리트 패션의 해체주의 경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1990년대는 스트리트 스타일이 패션으로 대중화되어 보다 폭넓고 다양한 스타일로 혼재되어 나타난 스트리트 패션의 절정기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유행하였던 스트리트 패션으로 네오모즈/제즈, 네오히

피/그런지, 스포티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펑크의 네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각 스타일의 유행 경향을 1990년대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초반에는 네오히피/그런지와 테크노/사이버펑크가 높게 나타났으나 중반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네오히피/그런지와 스포티브 캐주얼은 후반에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 두 스타일은 향후 유행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상기 정량적 분석결과와는 Polhemus가 정성적 분석만으로 1990년대 대표적 스트리트 패션으로서 히피 스타일(The gathering of the tribes)과 캐주얼 스타일(The supermarket of style)을 도출한 것과 비슷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 2) 1990년대 S/S 스트리트 패션별 해체주의의 내적 의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스트리트 패션별 해체주의의 내적 의미의 분석결과, 네오모즈/재즈, 스포티브 캐주얼과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 '상호텍스트성'이 가장 높았고, 네오히피/그런지에서는 '타자성의 부각', '탈현상', '차연의 유희'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수치가 비슷하였다. 상호텍스트성에서는 네오모즈/재즈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탈현상과 타자성의 부각, 차연의 유희에서는 네오히피/그런지가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 3) 1990년대 S/S 스트리트 패션별 해체주의의 외적 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스트리트 패션별 해체주의의 외적 표현을 살펴보면, 네오모즈/재즈에서는 해당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해체주의의 외적 표현과 관련 없음을 알 수 있다. 네오히피/그런지에서는 빈곤·황폐가, 스포티브 캐주얼은 노출이,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는 파괴·분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출에서는 스포티브 캐주얼이, 파괴·분해에서 테크노/사이버펑크가, 빈곤·황폐는 네오히피/그런지가, 탈장르에서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해당없음에서는 네오모즈/재즈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1990년대 S/S 스트리트 패션은 해체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 중에서 네오히피/그런지와 스포티브 캐주얼 스타일이 가장 주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네오히피/그런지 스타일이 가장 유행하였으며, 이는 환경보호와 소외되어 왔던 것들에 대한 관심, 자연적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이 경향은 본 연구의 여러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해체주의의 내적 의미 중 타자성의 부각이 높았던 것 그리고 해체주의의 외적 표현 중 빈곤·황폐가 높게 나타난 것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1990년대에 액티브 스포츠웨어와 레저웨어의 패션화가 추구되기 시작하여, 그 소비자층은 계속 확대되어 일상복에서 연령, 성, 직업, T.P.O에 구애받지 않는 가장 보편적인 의류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다양한 디자인의 창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스트리트 패션을 분석함에 있어서 직접 거리에서 관찰 한 것이 아닌 프레타 포르테 패션쇼에서 보여진 사진 자료를 사용한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자료수집의 문제점으로 인해 각 패션 연구소에서도 패션쇼에서 보여지는 유행 예측 자료로 유행 경향을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스트리트의 대중들에게 착용되어진 1차 자료로 얻어진 결과였다면 보다 더 현실적인 결과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Marcia A. Morgado, Coming To Terms With Postmodern: Theories and Concepts of Contemporary Culture and Their Implications for Apparel Schola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1), 44-53, 1996.
- 2) 이영재·구인숙, 흑인 스트리트 패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1(3), 1997.
- 3) 정현숙·양숙희, 하위문화 패션 출처로서의 영국 street style 연구, *복식*, 42, 1999.
- 4) 김희남, 현대 여성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트리트 패션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5) 이경수, 스트리트 패션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성*

- 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6) 정경희, 스트리트 패션의 발생배경과 유행현상, 효성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7) 이정후·양숙희, 포스트 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복식, 45, 1999.
 - 8)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II), 복식, 37, 38, 1998.
 - 9) 경은주, 현대 복식에 표현된 해체주의적 표현방법,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10) 김성복,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학교 논문집, 1994.
 - 11) 김주영,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12) 삼성패션연구소, Samsung Fashion Trend, 1998A/W, '90년대 패션의 흐름', 21, 1998.
 - 13) 삼성패션연구소, Samsung Fashion Trend, For Women S/S, 'Trend와 Counter Trend의 공존', 26, 1999.
 - 14) Polhemus, Ted, *Street Style*, London: Thames and Hudson, 136-137, 1994.
 - 15) 삼성패션연구소, 앞글, 22-26, 1998.
 - 16) 삼성패션연구소, 앞글, 26, 1999.
 - 17) Junko Ouchi, *Collections*, Gap Japan Co., Ltd, 1990 ~2000.
 - 18) 삼성패션연구소, Fashion Form, 9, 22, 1997.
 - 19) 삼성패션연구소, Message from the Street. 1995.
 - 20) Derrida, Jacques, trans. David B. Allison, *Speech and Phenomena and Other Essays on Husserl's Theory of Sign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23, 1990.
 - 21) Irena R. Makaryk, *Encyclopedia of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Univ. of Toronto Press, 589, 1993.
 - 22) 김성곤(편), 탈 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46-48, 1988.
 - 23) Collections II, S/S Gap Japan Co., Ltd,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24) Interfashion Planning Inc., *Street Fashion Report* 10, 1996.
 - 25) _____, '00/01 Fall·Winter General Fashion Trend, 1999